

# 여성, 그 미심쩍은 이름

임 효 신 / 의사신문기자

**현** 정사상 처음으로 여성총리서리가 탄생했다. 크게 기뻐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한 일련의 정치공방들은 개운치 않은 찝찝함을 남기고 있다. 문제는 장상 총리서리가 아들국적문제, 친일행적이 있는 김활란 상 제정 추진, 아파트 불법개조까지 여러 건에서 차가운 비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첫 여성 총리 탄생을 기뻐하던 여성계의 자축 분위기에도 제동이 걸렸다. 총리직도 아닌 총리서리직을 놓고 여자가 국방을 아네 모르네 설전이 오가고 솔한 성명서가 발표된 것도, 총리서리의 뒤편이나 자질이 조금 부족해도 여자니까 관대할 필요가 있다, 없던 논쟁도 우리 나라 우리 시대 여성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착잡함을 느끼게 한다.

언제쯤 되어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문맥이 그야말로 양성 평등의 깨끗한 백지 위에서 쓰여지게 될까. 아직까지 여성은 정치와 경제, 문화 제 분야에서 과연 한 몫을 해낼지 검증되지 않은 '미심쩍은 존재'로 읽히고 있다.

1977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로잘린 알로는 사무실에 이런 글을 적어놓았다고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성이 남성의 절반만큼 대접받으려면 남성의 두배 이상 잘해야 한다." 사회와 남성, 그리고 여성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이 좀더 집요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다.

울초에는 서울대 의대 합격자의 반이 여자라는 사실이 대단한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 의대 여대생의 증

가세가 핀란드 여성 대통령 당선이나 일본의 첫 여성 지사 선출과 같은 여권 신장의 발로라는 해석이 쉽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가져오던 사회적, 경제적 대우가 예전 같지 않아 더 이상 남성들의 구미에 맞지 않게 됐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지원만큼 남학생들의 이탈이 있었다는 걸 직시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또한 여성을 향한 굴절된 시각을 반증하는 사례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2001년 48.8%로 9.5%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직업계층 상층부는 남성이 차지하고 여성은 하층부에 머물러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건재하고 있다. 또 고학력 여성은 20대에 높은 경제활동을 하다가 30대 이후 급락하고 저학력 여성은 30대 이후 직장을 많이 찾게 되는 현실이 통계 뒤에 숨은 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년간에 성취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수인 남녀평등지수가 29위, 정치경제 분야에서 여성이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인 여성권한척도가 61위다. 2002월드컵을 치른 나라에서 여성지위만은 유독 바닥권인 셈이다.

여자가 대통령이 되도 눈하나 꿈쩍 안하는 사회. 어느 분야, 어느 조직에 가도 여성이 반수이상은 차지하는 사회. 여아를 출산해도 부모가 마음아파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유토피아다. **PPFK**